

# 14

## 부산 레슬링 협회

부산 레슬링의 역사는 1947년경 신무룡(와세다대 졸) 선생이 지도한 선수가 1949년 서울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에 박갑용, 손덕필 외 2명이 참가하면서 시작했다. 1956년 한국전쟁 후 현재 부산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근처 철도무덕관에 레슬링부를 개관한 고(故) 차대우가 레슬링 선수들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1958년경 고 차대우는 현재 총무동 농협 부근의 2층 목조건물로 이전해 레슬링 단일 종목지도 체육관으로 개관하고, 1959년에는 농협 뒷건물에 국제종합체육관을 개관해 체육관 소속 선수들을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시켰다.

1960년 11월에는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종합체육관에서 고(故) 김충기를 사범으로 추천해 선수를 육성했다. 이어 1961년 초대 부산시 중앙정보부 지부장을 지낸 박용기가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9번지에 위치한 의용소방서를 보수 공사해 사단법인 한일체육관으로 개관했다. 관장 박용기, 부관 장 검 레슬링 사범 차대우, 총무부장 검 레슬링사범으로 김충기가 부임했다.

이 시기 체육관 소속 선수들은 경남공고, 해동고, 광성공고, 원예고, 부산상고, 동래고, 경남상고, 북부산고, 대양공고, 해양고 등이었으며, 이들 학생들은 체육관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해 대회에 출전했다.

1963년 고 차대우의 노력으로 동아대 레슬링부가 창단됐다. 선수로는 최차덕, 소운석이 입학했다. 그후 1968년 한일체육관 자성지부(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가 신설되면서 김연이가 레슬링 사범으로 선수를 육성했다. 자성지부에서 올림픽대표(정윤옥, 김익근)를 탄생시켰다. 그 외 체육관으로는 광무체육관(고 장창희), 극동체육관(오정용, 김성진) 국제체육관(고 장창희, 김연이), YMCA(정윤옥), 한일체육관(남장문) 등이 지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70년까지 레슬링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 대부분이 한일체육관 소속의 선수들이었다. 1963년 동아대 창단 이후 초대 박갑용 감독에 이어서 오정용 감독은 동아대 감독 재직 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 양정모를 배출시켜 부산 체육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올림픽금메달 획득 기념으로 현 동래구 사직동에 양정모체육관 건립과 함께 수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했다.

차봉준에 이어 길태오, 현재는 김기중이 감독직에 있으며, 차봉준은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양용치(전 레슬링협회 회장), 고 장창희는 부산 최초로 1977년에 실업팀(부산위생공사)을 창단했고, 1978년 초에 대선주조(김연이 감독) 실업팀이 창단됐다.

1987년 초 부산시청 레슬링팀(감독 : 정윤옥, 이선오, 이상훈, 현 허성준)이 창설되면서 부산 레슬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여자레슬링은 최초 지도자 김영구에 이어 남장문이 지도했으며, 2011년 초 부산시체육회 여자실업팀이 조찬옥을 감독으로 창단됐다.

1973년경부터는 부산 레슬링을 학교 체육의 엘리트종목으로 육성·발전시켰다. 건국상고(김말식), 송도상고(김경룡), 부산실고, 정보디자인고(김성진), 부산체고(오정용, 김종식), 가야고(최경수, 이현창, 김성훈), 브니엘고(문창원), 동아공고(길태오), 부산대저고(신영국), 용인고(박영조, 배혁) 등에서 학교 체육이 엘리트 체육으로 거듭나도록 감독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부산 레슬링의 역사를 발전시킨 주요 계기는 1971년경 고 차대우가 일본 이바라기현의 류마지리 레슬링협회 회장과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한·일 친선경기였다. 일본(이바라기, 도찌기, 군마) 3곳과 한국(부산, 전주) 2곳에서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협회의 경제적·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 발전을 이끈 사람은 고 차대우 부회장, 정병은 전무이사, 전도부 사무국장과 경기 임원 고 최차덕, 고 박경천, 지도자로서는 강경성(전 레슬링협회 회장), 정윤옥(전 부산레슬링협회 감독), 서봉인 회장, 양용치 회장 등이다. 특히 양용치 회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인물로 부산 레슬링이 전국체육대회에서 3연패라는 전국 최강의 업적을 달성해 부산이 전국 명문 레슬링협회로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공헌했다.

또한 1980년경 서면중(양용주), 대신중(신기태), 건국중(장용남), 재송중(박효영), 대저중(이종회), 중앙중(장재훈) 등 중학교 레슬링부가 창설되면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레슬링선수 출신들이 감독직을 맡아 부산 레슬링의 저변화를 꾀하게 됐다. 한편 고 장창희의 노력으로 경성대 레슬링부가 창설되면서 경성대 초대 감독으로 고 장창희, 김장현, 천일남, 김진규, 현 김정섭 감독까지 대를 이어 레슬링사에 공적을 남겼다. 경성대 출신 김인섭은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부산레슬링협회의 팀은 초등부(봉산초), 중등부(재송중, 건국중, 부산체중, 서면중), 고등부(부산체고, 용인고, 경남공고, 건국고), 대학부(동아대, 경성대), 실업팀(부산광역시청, 부산시체육회) 등 총 13팀으로 구성돼 있다.

### 역대 회장

제1대	이광준	1962~1964
제2대	최성택	1965.03~1965.06
제3대	이병기	1965~1968
제4대	박봉휘	1969~1971
제5대	김태욱	1971~1973
제6대	권순복	1974~1976
제7대	민영환	1976~1977
제8대	서봉인	1978~1982
제9대	양용치	1983~1989.03
제10대	장창희	1989.04~1999.07
제11대	양용치	1999.07~2000.04
제12대	강경성	2000.04~2007.01
제13대	김영길	2007.02~2013.01
제14대	이양호	2013.01~현재

### 현직 회장

#### 이양호

(주)토명개발 회장

- 현 하동군장학재단 이사장
- 현 부산하동향우회 회장
- 부산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 제6대 새천년라이온스 회장
-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

현직 회장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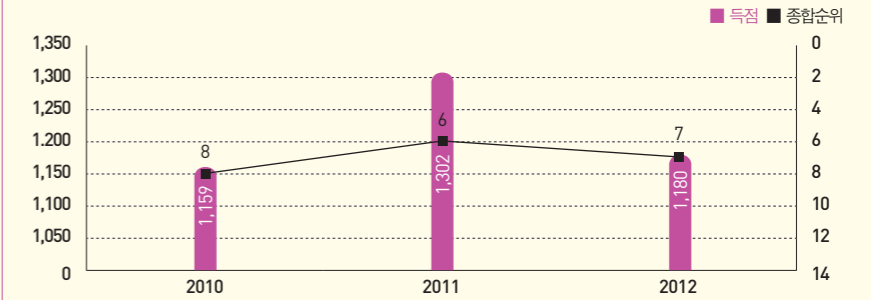
협회 직위	성명	직업
회장	이양호	(주)토명개발 대표이사
자문위원	황규동	(주)해광수산
	김용민	협신기업
부회장	이정수	대한농산물 대표
	이종근	보람테크수산(주) 대표이사
	이종희	대저고등학교 교사
	이명우	삼성상조(주) 대표이사
	이동현	동신조경 대표이사
	최희열	동국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한영산	상업
	전무이사	배 혁
총무이사	조찬욱	부산광역시체육회 감독
경기이사	한동훈	부산체육고등학교 지도자
강화이사	강재식	상업
심판이사	옥철안	건국중학교 지도자
기획이사	허성준	부산광역시청 감독
지도이사	김기중	동아대학교 감독
훈련이사	김정섭	경성대학교 감독
홍보이사	송동수	부산시레슬링협회 지도자
섭의이사	박승호	서면중학교 지도자
시설이사	조현욱	웅인고등학교 지도자
국제이사	박진호	서면중학교 교사
	권오순	장수촌 대표
	강성할	부산일보
	윤지웅	(주)웅진테크
	이종학	상업
	김봉국	K건국 대표이사
	박양수	상업
	송원우	(주)우원 대표
	이순정	동원투자 대표이사
	이종석	수영농협 지점장
	임병옥	(주)태영금속
	정국용	깜돌이 식품
	차재훈	(주)영풍정공
이사	김삼용	재부하동향우회 장학회 이사장
	박정기	건축업
감사	장용남	건국중학교 교사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18/96	-	6/25	5/28	3/34	4/9
2011	20/113	-	9/40	5/29	2/32	4/12
2012	16/121	-	6/51	4/28	2/31	4/11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3년)

연도	종합순위(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8(1,159)	3/3/12	13(267)	2(579)	10(313)
2011	6(1,302)	3/7/8	11(366)	1(648)	10(288)
2012	7(1,180)	6/2/6	13(356)	1(592)	14(231)



올림픽대회 참가자 현황

연도	대회명	성명	소속	체급	순위
1964	도쿄올림픽대회	강두만	동아대	자유형 82kg	출전
		차대우		국제심판	
		이강준		임원	
		김충기		임원	
1968	멕시코올림픽대회	오정용	동아대	자유형 52kg	5
		서훈교	동아대	그레고로만형 68kg	출전
1976	몬트리올올림픽대회	양정모	동아대 OB	자유형 62kg	금메달
		정윤옥	시민회관	자유형 57kg	출전
1984	LA올림픽대회	손갑도	동아대	자유형 48kg	동메달
		김이곤	주택공사	자유형 57kg	동메달
		박병호		반탐급(G)	
1988	서울올림픽대회	허병호	동아대	그레고로만형 57kg	출전
		차봉준	동아대 감독	올림픽대표팀 코치	
1996	애틀랜타올림픽대회	박치호		58kg(G)	
2000	시드니올림픽대회	김인섭	경성대	그레고로만형 57kg	은메달
		이현창		임원	
2012	런던올림픽대회	이현창		임원	

세계선수권대회 참가자 현황

연도	대회명	성명	체급	순위
1961	요코하마세계선수권대회	차대우	심판	
1967	뉴델리세계선수권대회	오정용	자유형 52kg	동메달
1970	캐나다세계선수권대회	차대우	국제심판	
		서훈교	라이트급(G)	
1981	유고세계선수권대회	양용치	단장	
1995	체코세계선수권대회	배 혁	임원	
1998	스웨덴세계선수권대회	김인섭	그레고로만형 57kg	금메달
1999	그리스세계선수권대회	김인섭	그레고로만형 57kg	금메달
2003	프랑스세계선수권대회	강경성	단장	

세계주니어대회 참가자 현황

연도	대회명	성명	체급	순위
1971	도쿄세계주니어대회	김충기	단장	
		김현두	감독	
		박효영	플라이급(F)	4
		신기태	플라이급(G)	4
1973	미국세계주니어대회	양정모	페더급(F)	2
		조성환	국제심판	
		권오중	웰터급(F)	
1977	라스베가스세계주니어대회	박동건	반탐급(G)	
		권오봉	라이트급(F)	
		박유주	주니어플라이급(F)	
1979	몽고세계주니어대회	박유주	주니어플라이급(G)	
		손갑도	주니어플라이급(F)	2
		길태오	플라이급(F)	
		이선오	반탐급(F)	
1981	캐나다세계주니어대회	김태일	단장	
		임종식	감독	
		김충기	국제심판	
		조용득	주무	
1994	헝가리세계주니어대회	천일남	감독	
2012	태국세계주니어대회	허성준	코치	
		김정섭	코치	

# 15 부산역도연맹

## 아시아경기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자 현황

연도	대회명	성명	체급	순위
1970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오정용	자유형 52kg	출전
		김화계	자유형 82kg	출전
1974	이란아시아경기대회	양정모	자유형 62kg	금메달
		박영빈	주니어플라이급(F)	
1978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양정모	자유형 62kg	금메달
1982	뉴델리아시아경기대회	오정용	(F) 코치	
		손갑도	자유형 48kg	은메달
		차봉준	(G) 코치	
198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김영구	그레고로만형 48kg	금메달
		이삼성	그레고로만형 68kg	금메달
1998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이현창	입원	
		김인섭	그레고로만형 57kg	금메달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김인섭	그레고로만형 66kg	금메달
		김정섭	그레고로만형 68kg	은메달
2006	도하아시아경기대회	김정섭	그레고로만형 68kg	금메달
		김광석	그레고로만형 120kg	금메달

## 아시아주니어대회 및 아시아카дет선수권대회 참가자 현황

연도	대회명	성명	체급	순위
2007	아시아카дет선수권대회	김진혁	74(G)	1
2008	아시아카дет선수권대회	김준형	74(G)	1
		이세열	84(G)	2
2010	광저우	이재성	84(F)	2
		안창근	96(G)	3
		이현창	입원	
2003	아시아주니어대회	배익새	72(F)	3
2004	아시아주니어대회	배익새	72(F)	2

## 국제대회 참가자 현황

연도	대회명	성명	체급	등위
1982	스웨덴메다컵대회	이상훈	미들급(G)	
1983	터키아사도구선수권대회	이상훈	미들급(G)	3
		김충기	단장	
1984	캐나다컵대회	손장홍	반탐급(F)	
		양기상	슈퍼헤비급(F)	

역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26년 일본체육회 체조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서상천(徐相天)에 의해서이다. 그는 종로에 있는 자택에서 조선체력증진법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1930년에는 사재(私財)로 도장을 건립하는 동시에 연구회를 중앙체육연구소로 개칭했다.

1928년 2월 중앙기독청년회 체육부 주최로 우리나라 최초의 역도경기인 현상역기대회(懸賞力技大會)가 개최됐다. 1936년 5월에는 조선역기연맹(1939년에 조선역도연맹으로 개칭)을 조직했으며 그해 5월 제1회 전일본중량거(重量擧)선수권대회에서 김용성이 경체급에서, 김성집이 중체급에서 우승했다.

1937년 제2회 대회에도 4명을 파견하여 모두 우승했으며, 1938년 10월 제3회 대회 때는 남수일이 60kg급 인상과 추상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6체급에서 우승했다. 명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역기(力技)라 불리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역도로 개칭됐다.

해방 후 1945년 11월 26일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조선역도연맹은 미국체육회의 초청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한국 역도사상 처음으로 김성집, 남수일, 박동선을 보내 이 대회에 참가한 15개국 가운데 종합전적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 대회를 계기로 IWF(International Weight Lifting Federation : 국제역도연맹)에 가입했고, 1948년에는 KWF(Korea Weighting Federation : 대한역도연맹)으로 명칭을 바꿨다. 1948년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에는 7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 김성집이 3위를, 이규혁, 김창희가 4위와 6위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종목에서의 부진을 만회했다.

이후 6·25전쟁으로 어려운 역경에 처했는데도 1952년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에 참가, 미들급(75kg급)의 김성집이 총 382.5kg으로 2회 연속해 3위에 입상했고, 2명의 선수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1956년 제16회 멜버른올림픽대회에서는 라이트급(67.5kg)의 김창희가 합계 370kg으로 3위에 입상했으며, 그밖의 선수들도 4·5위의 상위권에 진입했다.

1958년에는 AWF(Asia Weight Lifting Federation : 아시아역도연맹)에 가입했다. 1950년에서 1960년대까지는 한국 역도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국제 스포츠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도입하지 못한 탓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록이 저조했다.

그러다가 88올림픽대회 이후 차츰 경기력이 향상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 56kg급의 전병관이 금메달을 따고 다른 선수들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제2의 중흥기를 맞았다. 전병관은 1993년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1998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69kg급 김학봉이 옹상 195kg을 들어 올려 세계신기록을 세웠으며, 김태현도 105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20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는 75kg급의 장미란이 여자 역도 사상 첫 메달인 은메달을 따냈으며,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는 75kg급 금메달을 수상했다.

한편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된 직후인 1964년 10월 도쿄올림픽대회에 참가한 부산의 이종섭 선수는 옹상에서 세계신기록(175kg)을 세웠으나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고 4위에 머물렀다. 멕시코올림픽대회에 참가 후 은퇴, 후배양성에 전념하기도 했으나 역도가 침체에 빠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역도연맹은 1993년 류원기 회장이 취임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점차 두각을 나타냈으며

### 현직 회장

이우갑

(주)친구 대표이사

-1984 (주)친구 설립